

건강 칼럼

췌장암 급격한 증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154명(0.5%)이 감소했다.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3914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장→폐→유방→위→전립선 순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환자 10명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에 진단받은 환자의 생존율(54.2%)와 비교할 때 20여년 전보다 약 18.7%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약 5.0%)이 유병자로 통계에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의 유병자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이는 자연스런 노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남성은 폐→전립선→대장→위→간→갑상선 암 순으로, 여성은 유방→갑상선→대장→폐→위→췌장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췌장암'이 여성 암 순위 6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췌장암의 발생 최대 위험요인은 흡연, 음주인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 음주가 적은 여성에서 췌장암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췌장암은 2012년에 9190명, 2022년에 9780명이 발병하여 6.4%의 증가를 보였다. 발생원인으로는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당뇨병, 만성췌장염, 노화, 필요이상의 음식물, 화학물

질 등이다. 흔한 증상으로는 갑작스런(참기 어려운)복통, (인슐린 기능 저하에 따른 영양소 흡수장애에 의한)체중감소, 황달, 소화장애 등이다. 예후가 나쁜 암 중 하나로 위의 아래쪽 복막 뒤에 위치해 있어서 진단 자체가 쉽지 않고 진행 자체도 빠른 편이라 상대적으로 생존율도 높지 않다. 애플 apple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56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 유상철 선수(50세, 후에 인천 유나이티드 FC감독)의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췌장(胰腺, pancreas) 또는 이자는 척추동물의 소화관 근처에 존재하는, 동화호르몬 분비기관이다.

각종 소화효소가 포함된 이자액을 분비하며, 또한 내분비샘으로 동화호르몬인 인슐린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게 하는 글루카곤(glucagon)등을 분비하여 소화 및 영양분의 흡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줄이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서로 길항작용을 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한다. 또한 아밀라아제, 트립신, 키모트립신, 리파아제 등 대부분의 강력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이는 위산에 의해 활성화되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진행한다. 그런데 최근 발생원인 중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식사량이나 식습관의 연관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소식 먹고 마시는데 맞았다?고 여겨지는, 달달한 것을 찾은 결과 고탄수화물, 고지방, 야식 등 고열량 음식섭취로 인해 췌장(인슐린의 분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기에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암으로 진전, 악화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 공습 피해 건물 잔해 치우는 우크라이나 인부들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시청 소속 작업자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대학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직접 현장에 와서 푸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고 나서 전쟁 끝낼 계획을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날 수미에 탄도 미사일 27발 발사해 최소 34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부상했다.

회담 전 악수하는 중-베트남 정상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4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설

김건희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김 여사 또한 영부인 지위를 잃었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해 왔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는 다르다.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혹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멍 로비 의혹 등 모

두 11가지다. 검찰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자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지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8차례 불법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원장 선거구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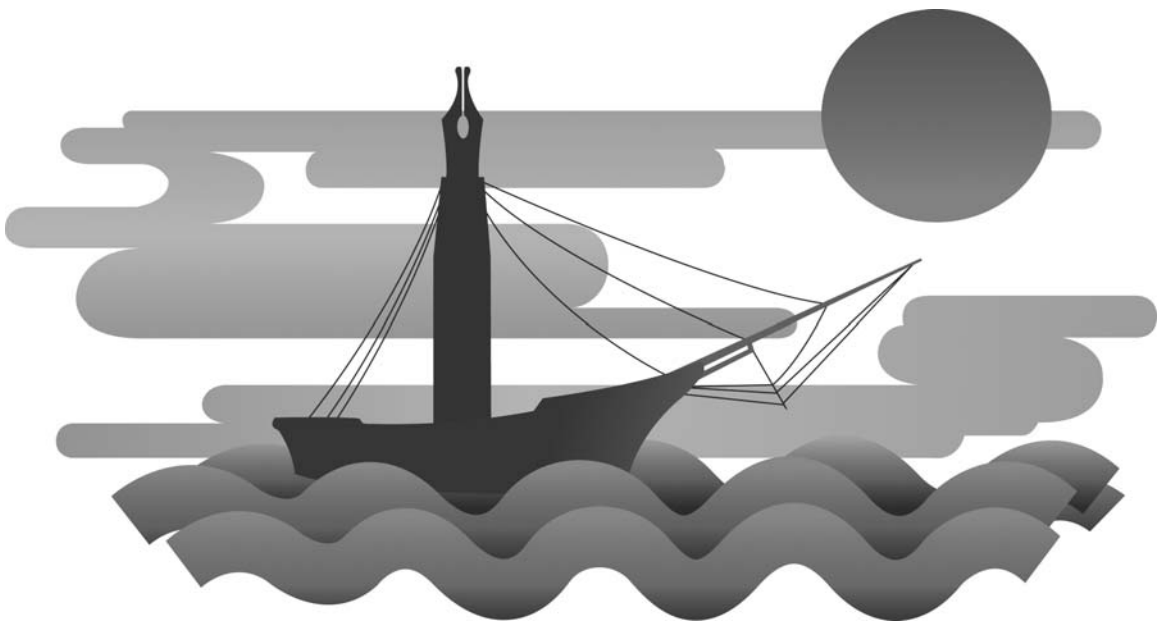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제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 제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해 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존 건강기능식품이 단순히 소분·조합된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을 사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경우 사실상 기존 건기식의 대체재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상담 후 조합하여 제공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키트 등의 명칭을 붙여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소분·조합 과정에서 재위탁

을 제한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소분·조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가 타 업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재위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약처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제도를 통해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최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된 업종이다. 한약사·약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및 영양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을 통해 소비자 개인에게 정제, 캡슐제 또는 환제인 건강기능식품을 한 종류 이상 개인맞춤형으로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